



“누가 골을 넣느냐 보다 우리가 골 넣는게 중요”

■ 아드보카트 감독 인터뷰

“가나전 선발 대부분 토고전 뺄 것”

“가나전 선발 출전 선수 중 대다수가 토고전에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Majority of them will be in the team. But not all)”

디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는 13일(이하 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토고와 첫 경기의 ‘선발 라인업 구상’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4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머레이 파크에서 가나와 평가전에 대비한 대표팀 훈련을 실시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가나전 선발 라인업을 토고전 선발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비록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토고전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의 베스트 일레븐 중 9명은 정해졌고 나머지 2명의 선택만 남았다’는 의신 보도에 대해서는 “남은 1주일 내내 생각해야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슈팅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공격수 8명 중 누가 골을 넣을 것 같나.

▲누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을 넣

는 게 중요하다.
-가나의 전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토고와 비교할때 어떤가.

▲가나와 토고 두 팀 다 아프리카 팀이라는 것 밖에 모른다(웃음). 중요한 것은 우리 팀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다. 잉글랜드가 자메이카를 6-0으로 이겼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약팀을 불러놓고 큰 스코어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강팀을 상대로 테스트를 한다.

-가나전 선발 라인업을 토고전 선발로 봐도 되느냐.

▲아니다. 가나전 선발 출전 선수 중 대다수가 토고전에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의신에서는 한국의 베스트 일레븐 중 9명은 정해졌고 나머지 2명의 선택만 남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남은 1주일 내내 생각해야겠다.

-지난 2일 노르웨이와 평가전 후반부에는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선수들의 체력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현재 수준이 만족할만한 정도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노르웨이전 후반부에 3-4-3 시스템을 쓰면서 변화를 줬고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플레이가 살아났을 수 있다. 또 체력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

■ 아드보호 공격수 8인방 ‘팔색조 슈팅’

주영-허리높이 직선포
지성-안정된 인사이드
천수-각도 큰 커브
정환-양쪽 구석 조준

재진-캐네포, 두현-곡사포

‘주영→허리높이 직선, 재진→캐네포, 두현→지능적인 곡사포, 지성→안정적인 인사이드, 정환→양쪽 사이드 조준 인스텝, 천수→각도 큰 커브, 기현→파워 원발, 경호→구석 찌르는 땅볼’

아드보카트호 공격수 8인방의 ‘팔색조 슈팅’이 불을 뿜었다. 4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머레이 파크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공격수들은 저마다 장기를 살린 슈팅으로 수문장들을 괴롭혔다.

박주영(FC서울)은 골키퍼가 가장 막기 어렵다는 허리높이 직선 슈팅을 선호한다.

박주영은 원발과 오른발을 번갈아가며 골키퍼 옆구리 높이로 조준했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는 적중률이 70-80%에 달할 정도로 정확했다.

조재진(시미즈)은 의외로 캐네포였다. 인터뷰에서 “내 슈팅이 약간 지직쩍 와서 보라”고 말한 적도 있는 조재진은 감상으로 각각을 달았다.

김두현(성남)은 궤도가 같은 플레이 스타일처럼 지능적인 곡사포를 날린다. 이날 훈련에서도 골키퍼가 한 발짝 전진한 걸 보고 ‘루프 샷’을 성공시켜 박수를 받았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안정적인 인사이드 슈팅으로 빈 곳을 노리는 스타일이다. 슈팅 파워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대신 정확도는 높은 편.

안정환(두산부르크)은 골키퍼가 선 방향에서 먼 쪽의 사이드를 조준해 날카로운 인스텝을 양발로 쏘아댔다.

이천수(울산)는 큰 각도로 휘어지는 커브 슈팅이 전매특허다. 오른발을 감아 차 불을 띄웠다가 골대 바로 앞에서 푹 떨어지게 하는 장면이 일품이다.

설기현(울버햄프턴)은 원발을 가득 파워를 실는다. 특정한 위치를 겨냥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슈팅 강도를 높여 승부를 거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정경호(광주)는 땅볼 슈팅이 매섭다. 특히 골문에서 대각선 쪽으로 돌면서 반대편 포스트를 겨냥하는 그라운드 슈팅이 몇 차례 시원하게 네트를 갈랐다. /연합뉴스



◀‘저미손’ 이운재 재가동

4일 오전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대표팀 훈련에서 골키퍼 이운재가 슈팅 방어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슈팅연습

4일 오전(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파크에서 열린 한국 대표팀 훈련에서 박주영이 슈팅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위스, 중국과 마지막 평가전

투톱 공격력 매섭고, 수비 불안 노출

독일월드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스위스가 4일 오전(한국시간) 중국과 가진 마지막 평가전에서 4대1로 승리하며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였다.

특히 2골을 넣은 간판 골잡이 알렉산더 프라이와 장신 공격수 마르코 슈트렐러 투톱은 어느 우승후보 국가의 공격진 못지 않게 위협적인 움직임 보였다.

반면 수비는 지난번 두 차례 평가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허점을 드러내 골이 총분히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 프라이-슈트렐러 투톱을 경계하라
프라이-슈트렐러 투톱은 몰 오른 공격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특히 전반 40분 첫 골이 터지는 과정은 인상적이었다.

상대 골지역 오른쪽 빈 공간을 노리는 군더더기 없는 통쾌한 오른족 미드필더 다비트 데겐이 따라가며 크로스를 올렸고, 왼쪽 미드필더 라파엘 비카가 이를 다시 골문 앞으로 넣어준 것을 프라이가 마무리했다.

미드필드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쫓아오는 스루패스도 일품이었다. 후반 28분 슈트렐러는 이 같은 깔끔한 패스를 이어받아 골키퍼까지 쫓힌 뒤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스위스전 해법은 역시 중원장악에 있다. 한국은 스피드와 체력을 바탕으로 미드필더를 제압하면서 상대 투톱을 고립시킨 뒤 수비 허점을 노려야 한다.

◇ 수비 불안 약점, 다시 노출
좌우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고 중앙에서도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는 스위스 수비의 약점은 이날 평가전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또 수세에 몰릴 때 수비 라인이 비교적 뒤로 처지면서 중거리 슈팅 찬스를 내주는 허점도 나타났다.

지난 두 차례 평가전과 이날 경기까지 스위스 포백 수비진은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잦아 측면 공간이 많이 생기는 틈새를 보였다. 이처럼 ‘그물 같은 조직력’이라는 평가를 받은 스위스 수비진이 여러 군데에서 약점을 보인 만큼 한국은 설기현과 박주영,

이천수, 정경호 등 좌우 윙 포워드를 앞세워 빠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수비진을 흔들고 중앙에서도 수비 라인이 뒤로 처질 때

과감하게 중거리슈팅을 시도하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스위스와 중국의 평가전에서 스위스 발론 베라미(오른쪽)와 중국의 팽현이 공을 두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선수명 한글 표기 변경

호나우디뉴 →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 호날두
네드베드 → 네드베트
비에이라 → 비에라

‘호나우디뉴’는 ‘호나우지뉴’로,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 선수들이 이름의 한글 표기가 일부 바뀐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말 포르투갈·네덜란드·러시아 등의 한글 표기를 최대한 원어 발음에 가깝게 바꾼 것을 반영한 결과다.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같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발음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는 원어 철자가 ‘Ronaldo’로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같지만 호날두로 고쳐 쓰게 됐다.

호나우디뉴(Ronaldinho)는 ‘di’가 ‘지’ 발

음이 나므로 호나우지뉴로 쓰게 된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는 프랑스의 ‘파트릭 비에이라’는 ‘파트릭 비에라’로, ‘루이 사하’는 ‘루이 사이’로 쓴다.

네덜란드의 공격수 ‘루트 반 니스텔로이’는 ‘루트 판 니스텔로이’로, ‘아르연 로벤’은 ‘아르연 로번’으로 바뀐다.

‘필립 코쿠’도 앞으로는 ‘필립 코쿠’로 쓰게 된다. 또 우크라이나의 골잡이 ‘안드레이 셰보첸코’는 ‘안드레이 셴첸코’로, 체코의 미드필더 ‘네드베트’는 ‘네드베트’가 된다.

잉글랜드의 17세 신예 공격수 ‘테오 월코트’도 원어 철자인 ‘Theo Walcott’의 영어 발음에 맞춰 ‘시오 윌컷’으로 표기한다.